

“‘180cm 거구’ 보자마자 반해버렸죠”



황세희, 7세때 만나 13년째 ‘하프’ 만 가슴에 꼭 “은 몸 사용 좌뇌, 우뇌 발달에 좋아...” 손 굳은살은 훈장 ‘USA 국제콩쿠르’ 4위 내일 금호아트홀서 ‘하프 독주회’ 개최

“외관도 화려한데 소리까지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하늘한 외모로 ‘하프계 요정’으로 통하는 차세대 하피스트 황세희(20·사진)는 높이 180cm·무게 40kg 안팎의 하프를 처음 만난 일곱살 때를 떠올리며 설레했다.
“처음에는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근데 흥미가 없었죠. 당시 선생님이 하프도 가르치셨는데 하프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호호.”
열살이 되면서 하프를 전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손에 물집이 잡혀 피가 맺히고 군살이 계속 생겨도 연주하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고 미소지었다
“하프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꼭 안고 밀착해야 하죠. 연주할 때 그 진동에 전율이 일어요.”
황세희가 하피스트로서 더 빛나는 건 자신의 활동이 아직 대중적이지 않은 하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

음이다. 다른 악기보다 품이 많이 드는 하프 콩쿠르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다.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고에 입학했으나 좀 더 많은 연습시간이 필요해 홈스쿨링도 택했다.
“너무 크고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 콩쿠르에 자기 악기를 가져가지 못해요. 주최측에서 10개 정도를 준비해주는데 30분 안에 이리저리 훑기며 골라야 하죠. 규격 등이 달라 자신에게 맞는 하프를 찾기 힘들죠.”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하지만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하프에 더 관심을 쏟고 대중화가 될거라 믿는다”고 웃었다.
2014년 프랑스 하프 콩쿠르 전체 대상을 받은 황세희는 지난달 하프 콩쿠르 중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로 통하는 ‘USA 국제콩쿠르’에서 4위에 올랐다. 3년 주기인 이 콩쿠르로 2019년에 나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눈을 빛냈다.
한 살 터울인 언니 황세영도 하피스트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하프를 시작했다. “서로 소리를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가족이다 보니 무엇이 부족한 지 가감 없이 조언도 해주고, 언니랑 같이 하프를 연주해서 너무 든든해요.”
두 자매는 2011년 스승인 하피스트 곡정 이 음악감독으로 있는 ‘하피데이 앙상블’에 입단했다.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하프 앙상블로 최근 미국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올라 호평 받기도 했다. “하프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생각보다 다양해요. 큰 무대에서 연주를 하며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와 하프에 대한 학구열로 울레 울레 인디애나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에 입학했다. 하피계의 거장 수전 맥도널드(81)를 사사하고 있다.
USA 국제 하프 콩쿠르를 창설한 인물로 곡정의 스승이기도 하다. 황세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하피스트 겸 작곡가 안드레 르니에의 제자이기도 하다.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프 이론 쪽으로도요. 하프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때 이론적인 바탕이 많이 도움을 될 거라 믿어요.”
오직 하프 생각뿐인 황세희는 외모로 주목 받는 것도 하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면 “고마운 일”이라고 수줍게 웃었다. “하피계의 손연재”로 불릴 정도로 외모도 뛰어난데 어릴 때 발레를 배운 덕분에 몸을 쓰는 것도 우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페달을 밟는 등 하프를 연주할 때 온몸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하프가 오른손, 왼손 뿐만 아니라 몸을 다 사용해서 좌뇌, 우뇌 발달에 좋아요. 대중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죠.”
하지만 하프를 연주하는 건 수면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발을 놀리는 백조의 우아함과 겹쳐진다. 갓 20세가 된 황세희의 손은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겸 단장의 울릉불뿔한 발을 떠올리게 한다.
계속 굳은 살이 배기는데 하프 줄을 유연하게 튕기고 청아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 굳은 살을 사포 등으로 갈아내야 한다. 연습을 많이 할수록 이 작업의 빈도도 많아지고 그 만큼 물집도 자주 잡힌다. “그래도 연주할 때 좋은 걸 아떡해요. 호호.”
21일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황세희의 하프 독주회는 그녀의 하프에 대한 사랑과 하프 독주를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김민근 기자

‘장수가야 출토유물 특별전’ 9월 1일까지 한누리전당서

장수군은 1993년부터 20여년간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된 장수가야 출토유물 중 대표유물 20여점에 대한 ‘장수가야 출토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군은 20일 오후 2시 장수한누리전당에서 최용득 장수군수와 김인태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종문 군의회 부의장, 양성빈 도의회 의원, 이주현 전주박물관 관장지무대리, 광장군 군산대학교 박물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가야 출토유물 특별전시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 특별전은 20일부터 9월 1일까지 장수한누리전당 1층 전시실, 9월 2일부터 4일까지 장수 한우량사과당 축제 주재관에서 열리며 장수지역에서 발굴된 유계장경호, 발명기대 등 토기류 15점, 편자 등 철기류 7점, 금세귀걸이 등 장신구류 3점 등 총 25점이 전시된다.
장수가야 문화유산은 20여 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해 200여건의 왕릉급 고총고분, 계북에서 번안까지 약40여km에 걸친 호남 최대규모의 제철유적, 30여개소의 삼국시대 유일의 봉수유적, 10여개소의 고대산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사적 및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최용득 군수는 “장수는 가이저”라는 건배사를 통해 “장수가야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 박물관 관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훌륭한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학술조사 성과를 토대로 학계의 관심증대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노성기 ‘신 진경산수’ 전

도립미술관 서울관서

노성기 개인전 ‘Eden Forever, 신 진경산수’ 전이 오는 25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조선의 진경산수를 바탕으로, 자연을 입체적 조형으로 새롭게 묘사하고 해석한다. 작가는 고목에 자연을 고풍조(돌출된 모양이나 형상의 부분이 두툼하게 드러남)로 조각한 다음 그 위에 자연재료(자개·한지·꽃·천연석)와 물감을 덧입힌다.
그는 이러한 작업방식을 통해 전통적 조형이 지니고 있는 평이함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입체와 평면, 사실과 추상이 공존하는 신 진경산수를 시도한다.
새로운 조형의 탐구와 동·서양의

기법을 혼용해서 제작된 작품은 실제 자연이 아닌 제 3의 공간으로 연출되며, 이는 흡사 무릉도원을 연상케 한다.
신 진경산수 작품은 반복된 노동과 단순한 정신의 산물이다.
작가는 “고목을 꺾고 다듬고 조각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깊은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간결한 드로잉과 무수한 자개의 중첩은 수없이 반복되는 수도자적인 고행과도 같다.”며 “그것은 거대한 자연에 대한 순응이자 경외이며, 예전의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작가는 kunst messe frankfurt15(프랑크푸르트, 독일), karlsruhe art fair(칼스루에, 독일), eden mountain (교동아트미술관, 전주)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그의 4번째 개인전이다. /정해은 기자

바람꽃 국악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내일 전주 덕진노인복지관서 공연

바람꽃 국악오케스트라의 제4회 정기연주회 ‘은 고을에 바람꽃이 피었습니다.’가 22일 오후 7시 30분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야외특설무대(우천 시, 복지관 강당)에서 열린다.
바람꽃 국악오케스트라는 보호자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 받지 못하는 전주 삼성후민빌 소속 아동 3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장애우와 재가요양 어르신을 위한 초청공연, 문화소외지역 방문공연 등으로 사랑을 되 나누고 있다.
이번 공연은 초청된 재가요양어르신을 비빔발 축제의 미취학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및 이벤트, 국악연주 무대 등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국악무대에는 판소리 심청가 중(봄아타령), 창작무용, 국악관현악(신밧놀이), 국악가요(흥부동무, 산도깨비, 오나라), 비보이 협연(타, 사물놀이협연(신모듬) 등이 연주된다.
이외에도 먹물거리와 즐길거리로 구성된 체험부스, 외발자전거·서커스·비보이 공연, 깜짝 선물, 드론 체험, 풍등 날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날 공연은 ‘민·관·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연주단을 지원하는 무대에서의 의미를 더한다.
창단 후 4년 동안 아동을 지도해 온 전라북도립국악원은 국악교육과 공연기획·연출을, 현대자동차전주공장과 금속노조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는 공연에



바람꽃 국악오케스트라 공연 모습.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후원한다. 또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분부는 공연지원 전반을, 아동들을 보살펴온 바람꽃 후원회도 연주를 위해 여는데 동참했다.
공연 연출과 운영을 맡고 있는 김종균 국악원 기획담당은 “기적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간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바람꽃의 따뜻한처럼 이들의 나눔 행사에 동참하는 관객들은 분홍색 옷이나 소품을 착용하고 입장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 배포하는 소품 착용도 가능하다.
한편 바람꽃 국악오케스트라는 오는 27~29일 열리는 제8회 행복한 예술캠프를 위한 무대 ‘완주군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에도 오를 예정이다.
공연문의 290-5532, 221-7001. /정해은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외계층 대상 무료공연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부족했던 소외계층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2일까지 무료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2016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성, 춘향’의 관람을 지원한다. 관람 작품은 전통문화 자원이 고전 춘향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 뮤지컬로 현재 전북예술회관에서 공연 중이다.
신수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은 “이번 상생 문화 지원 프로젝트로 도내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민에 대한 문화혜택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센터는 도민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질의 문화복지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관람 신청은 센터를 방문하거나 254-3813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비빔발축제조직위, 홍보물 제작업체 모집

전주비빔발축제조직위원회는 2016년 전주비빔발축제의 인쇄홍보물 제작업체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25일 오후6시 까지다.
참가자격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거 출판업으로 신고하거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거 인쇄업으로 신고하고, 3년 이상 운영해온 업체로서 제작기간 내 디자인·제작·시공 등 전 작업과정 이행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업체이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비빔발축제 홈페이지 및 전주비빔발축제조직위원회 231-8969, 277-2518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21일)

<p>▷쥐띠 46년생: 컨디션 조절에 주의하라. 60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 72년생: 고민이 있다면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조언을 구하라. 84년생: 자신의 생각만 믿고 움직이지는 큰 코 다치는 운이다.</p>	<p>▷소띠 49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61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를 욕심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운이다. 7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자신보다 능력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라.</p>	<p>▷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이니 처음부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숨은 병명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썩는다.</p>	<p>▷토끼띠 51년생: 과한 것은 모자란것만 못한 법. 6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꾼이 나타나 고민할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운. 87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손윗사람의 도움을 빌려라. 답을 쉽게 찾는다.</p>
<p>▷용띠 52년생: 힘들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자꾸 막힘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8년생: 먼저 얻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p>	<p>▷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뜻을 일과 연장은 일이 같이 있겠다.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니 검토는 필수.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p>	<p>▷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다. 66년생: 올라오는 회기를 기다려라. 78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나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p>	<p>▷양띠 55년생: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평안함에서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기나 한편으로는 성가신 일들도 발생한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치가온 음식은 피하고 섭생에 주의하라.</p>	<p>▷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나 구설도 함께 따르니 주의하라. 69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날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p>	<p>▷개띠 46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익이 있는 운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p>	<p>▷돼지띠 47년생: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원형을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p>